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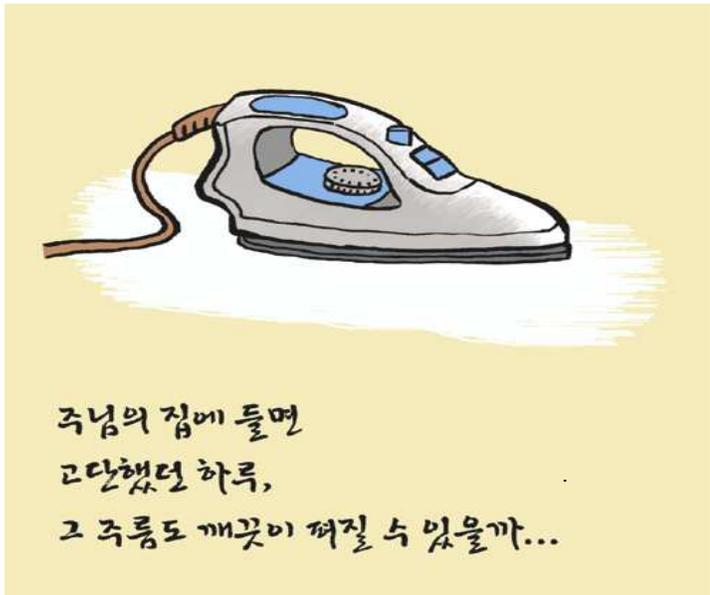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한국학교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토요일 오전 9:40-12:50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제 1독서]** 사도 2, 42-47  
**[화답송]** 시편 118(117), 2-4. 13-15ㄱ-ㄴ. 22-24 (◎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세.◎  
**[제 2독서]** 1베드 1, 3-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 20, 19-31

성가	8시 미사	입당 130	봉헌 129 135	성체 165 128	파견 134
	11시 미사	입당 130	봉헌 129 135	성체 165 128	파견 134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2주일(4월 27일)		부활 제3주일(5월 4일)		부활 제4주일(5월 11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조례지나(선덕)	임루카(승원)	황테레사(혜정)	정스텔라(애리)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허라우렌시오(순구)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전안드레아(덕천)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김테레사(승희)	최분다(수영)	심헬레나(승화)	김안토니오(휘)	문골롬바(지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하느님의 자비(慈悲)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교회가 정한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다. 자비(慈悲)라는 말은 사전에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 이라고 나온다.

단어 하나씩을 각각 살펴보면 깊은 뜻이 보인다. 사랑/어머니 자(慈), 슬픔 비(悲). 슬퍼서, 울음이 북받쳐 올라서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냥 불쌍해서, 마음에 측은한 감정이 들어서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열하며 가슴이 아파서, 세상을 다 잃은 듯 슬퍼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이다.

이 원고를 쓰는 오늘은 4월 20일. 예수 부활 대축일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오늘. 아이들이, 302명의 고귀한 생명이 캄캄한 어둠에 갇혀 절망과 공포의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 지 벌써 닷새. 아무리 알렐루야를 외쳐도 ‘부활을 축하 한다’ 고 인사를 나누어도 기쁘지가 않다. 기뻐지지가 않는다.

파란 하늘만 올려보아도 그저 눈물만 난다. 소리 내어 울고 싶어도 그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이 파란 하늘을 올려보며 숨 쉬고 있는 게 미안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울음을 삼킨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시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 21. 23)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평화를 약속하신 예수님! 적어도 지금은, 누구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은 없다.

나 먼저 용서를 받고 싶다. 염치 없지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서도 몰랐고, 모른척하고, 알았으면서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묻어두고 지나쳐 버렸던 그 많은 무관심과 이기심을 용서받고 싶다.

슬픔과 고통에 울음을 삼키시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 용서받고 싶다. 그래야, 하느님께 용서받아야, 소리 내 울 수 있고, 그 울음으로 분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 제자들이 느꼈을 그 ‘두려움’ 을 이겨내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부활은 현실(現實)이어야 한다. 성경 속의 오래된 옛 사건이거나, 마음속의 그 흔한 감동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삶의 ‘숨’ 이어야 하고, ‘빛’ 이어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캄캄한 바닷속 아이들과 함께 계셔야 한다. 꼭 그래 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리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이다.

꼭 보고 싶다. 토마 사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싶다. 내 손으로 만지고 더듬어 그 부활을 현실로 만나고 싶다. 아이들에게 이 찬란한 생명의 봄빛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 베드로 1서가 전하는 그 ‘생생한 희망’ 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범석 아우구스티노 신부  
(주)에스엠푸드 대표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어느 쪽이 더 좋은가 ?

사람이 모여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 수 만큼이나 의견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다.

그러다 예기치 못한 사람이 상상도 못한 말을 하면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 明心寶鑑, 천명편天命篇에서

\* 이 꼭지에서 인용되는 明心寶鑑 뜻풀이는 <이상호 옮김, 청소년을 위한 明心寶鑑, 신리출판사, 2006> 판을 인용·참고 하였습니다

어떤 주교님께서 사제들과 대화를 하시던 중,  
“저승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 보면…….” 하고  
말씀하시자  
주변에 있던 사제들이 박장대소한다.  
과하게는 주교님 비위 맞추느라 쓰러진다.

현대 어른들이 어려워 눈치만 보고 있던 새 사제가  
“주교님,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왜 라자로를 살리셨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셨잖아요?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주교님의 허를 찔렀다.

天聽 寂無音 蒼蒼何處尋(천청 적무음 창창하처심)  
非高亦非遠 都只在人心(비고역비원 도지재인심)  
바르고 착한 마음이 바로 하늘의 뜻이며 도리이니,  
이에 따른 말과 행동이 하늘에 순응하는 길이며 복을 받는  
길이다.  
곧 이곳에서의 올바름이 저곳으로 가는 시작이며,  
저곳에 대한 희망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당신께서 닦아 주신 의인의 행로는 울곧습니다.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이사 26,7-8)

신성근 야고보 신부  
청주교구 연수동 본당 주임신부



거룩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상급은  
시작만 좋은 사람이 아닌,  
끝까지 이겨 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글\_ 모상의 성 비오 신부 / 그림\_김미경

말씀의 향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의 직업은 수술실 요원이다. 수술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 이 직업은 정말 슬픈 직업이다. 수술이 실패로 끝난 날은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지어졌고, 성공으로 끝난 날은 최고의 의료진이라는 이름으로 추켜세워진다.

오후 3시, 낮 당번 근무가 끝났다. 지친 심신을 이끌고 퇴근하여 전철을 타기위해 방학역에 갔다. 하루 종일 서있었던 차라 다리가 많이 아팠다.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는데, 삼십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6살쯤으로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3살쯤으로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내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앉았다.

남매는 심심했는지 소형자동차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한 10분쯤 놀더니 남자아이가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내 옆에서 허공만 바라보고 있던 아이들의 엄마는 그 남자아이를 혼내기 시작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애가 왜 이렇게 무리해서 노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숨이 콕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남자아이는 동생한테 가서 “소연아, 미안해.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너랑 많이 놀 수 있을 텐데... 아파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 한 켠이 아려왔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낯두리를 하듯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건네 왔다.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프데 어떻게 하죠?” 라고. 나는 무슨 용기에서인지 “내일 우리 병원에 오셔서 입원을 시켜보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드님을 꼭 살려줄게요.” 라고 당당하고 밝은 음성으로 말하였다. 그분은 나의 말에 기운이 났는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느냐? 언제 가면 되느냐?” 고 물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엄마랑 마주쳤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같이 소아병동 소아심장과로 갔다. 남자아이의 이름은 성호. 6살인데 유치원에도 못가고 선천성 심장질환이라는 병하고 싸우고 있는 아이였다. 나는 아이에게 “성호야, 괜찮니?” 하고 손을 잡아주었다. 성호는 “괜찮아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라며 도리어 나를 위로 하였다. 아픈 아이들은 자기보다 자신을 지켜보는 보호자를 더 위로한다. 마음이 아려왔다.

이런 따스한 날이 지나고 또 지나서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다. 바로 성호의 수술일이였다. 성호엄마는 “선생님, 제 아이 꼭 살려주세요.” 라고 하였다.

나는 그분의 손을 꼭 쥔 채 “네, 우리 힘내요.” 라고 말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시간, 팽팽한 긴장감 속에 몇 시간이 흘렀다. 측로이식술이 다 끝나고 나니 오후 5시, 마무리 단계를 마치고 성호를 회복실로 옮겼다.

성호 어머니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선생님,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회진시간이 되었다. 의사선생님을 따라 성호의 병실로 갔다. “수술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예요. 소아심장병은 완치율이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도 성호어머니도 같이 울었다.

그날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료진이란 직업을 나는 잘 선택한 거야.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이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였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다. 아프면 아플수록 그 아픔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성호에게 하였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아픈 마음을 보시고 치유를 해 주실 것이다. 주님 꼭 닮은 의료진이 되고 싶다.

주님, 제가 주님처럼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진 의료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나무그늘 2011년 6월  
‘신앙체험 나누기’ 발췌

가톨릭전례

다섯째 계명

살인해서는 안된다.(2)

예수님께서서는 산상 설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다섯째 계명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지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죄뿐만 아니라, 타인을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행위에 거슬러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1)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도울 의무

다섯째 계명은 고의적인 살인의 죄뿐만 아니라, 위험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는 것을 금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음식이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자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살자들의 개인적인 잘못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파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섯째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영적인 죽음과 악한 표양

다섯째 계명은 영적인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적 건강에만 몰두하고, 과소비와 탐식,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이런 인생 태도는 영적인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 넘는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며, 또 이웃에게 영적인 가치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세상에 영적 생명을 증거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악한 표양” 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표양(스캔들)은 악을 저지르도록 타인을 이끄는 태도나 행위입니다. 악한 표양을 보이는 사람은 이웃을 영적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도록 사주하지 않더라도, 신앙인들이 생활 안에서 세상의 가치에만 몰두해서 산다면 “악한 표양” 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만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신자들, 편안함과 대접받음만 생각하는 성직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없으므로, 결국 영적 죽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평화의 일꾼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설교에서 “살인하지 마라.” (마태 5:21)는 계명을 상기시키시며, 여기에 분노와 증오와 복수하는 일까지 금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사랑할 것을 당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인간관계는 시한폭탄과도 같

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끓고 있어서 언제든지 폭력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분노와 복수심을 버리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신뢰심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 #5:9).

평화를 위한 노력은 국가 간에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전쟁 준비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전쟁의 원인이 되는 국가 간의 불의한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과 국가 간의 신뢰심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개인들과 국가들 사이에 만연된 불의와, 경제 사회 분야의 지나친 불공정과 불평등, 시기, 불신과 교만은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며 전쟁의 원인이 된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평화를 이룩하고 전쟁을 피하는 데에 이바지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17항). -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쟁야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현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향	봉헌자
4월27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대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익명
	연 이스테파노(상준)	전베로니카(진영)
	연 이요한/이베드로	가족
	연 이요셉/박마리아	가족
	연 김제이슨	이요한가족
	연 김중화	정대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대레사(혜경)
	연 요시주구카와키타	신미카엘라
	연 신철기	신엘리사벳
	연 최부열	최타데오(몽열)
	생 유데레사	윤사비나
	생 정카타리나(상은)	찬미성가대
	생 정카타리나(경희)	찬미성가대
	생 정Peter/Jamie	정분다
	생 정Peter/Jamie	성루카/우솔라
생 박헬레나	김유릿다	
생 박요세피나(지수)	염파트리샤	
4월29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생 정카타리나(경희)	순교자의모후
	생 김카타리나/윤현	김아네스(순이)
4월30일 수	생 최야고보(진우)	최베네딕타(수영)
5월 1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이스테파노(상준)	가족
	연 김석순	가족
	생 본당신부님	서대레사
	생 정스테파노신부님	서대레사
	생 이정우	전수산나
	생 James Lee	이막달레나
	5월 2일 금	연 메체도린
5월 3일 토	연 이마리아(수영)	이엘리사벳
	연 메체도린	서대레사
	연 메체도안토니오	서대레사
	연 서라이문도	서대레사
	생 김도미니코신부님	서대레사
	생 김마리안나	김쟁마
	생 서대레사	이엘리사벳
	생 박헬레나	서대레사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	408	-	408
헌 금	-	\$3,285	-	\$3,285

< 교무금 > \$570

이영기(3-4) 정일양(4) 팽현팔(4-5) 정경희(4)  
옥지홍(5-8)

< 성소후원금 > -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강수영 \$300 김순이 \$500

< 성목요일-가난한이들을 위한 헌금 > \$1,197

< 성금요일-성지복구를 위한 헌금 > \$818

< 부활성야 > \$1,265

~~~~ 오늘 간식은 이창용 레이몬드/이경란 베로니카 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양 -

- ◆ 성시간 : 5월 1일(목) 저녁 7시 30분
- ◆ 성모의 밤 미사 : 5월 3일(토) 저녁 8시
  - \*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봉헌을 준비해 주십시오.
  - \* 단체별 꽃봉헌은 각 단체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 지속적인 성체조배  
5월 2일(금) 저녁 9시 ~ 5월 3일(토) 아침 7시
- ◆ 꾸리아 월례회 : 5월 10일(토) 아침미사 후
- ◆ 성모의 밤 제대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 Rice Bowl 봉헌 : 성당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 매월 첫금요일은 환자봉성체가 있습니다.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원하시는 가정을 사무실로 알려 주십시오.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사목회의 : 5월 4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대건산악회 창립 및 회원모집 설명회  
교우들의 건강과 친교를 위한 산악회를 발족하고 함께 산행(걷기)을 하실 회원을 모집하고자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5월 4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대상 : 산행(걷기)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  
문의 : 회장 평현팔 하비에르 408-301-2299  
부회장 장진원 베로니카 510-402-3219

| 4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3-4장 |
|---------|-------------|------------|
| 5 구역    | 4월27일(일)미사후 | 대건회관       |
| 10 구역   | 4월27일(일) 6시 | 양우선 요한 맥   |
| 5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5-6장 |
| 8-1 구역  | 5월10일(토) 5시 | 이재우 야고보 맥  |

- ◆ 사진동호회 모임 및 강의  
4월 27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강의 : 실제적인 촬영법  
강사 : 김철우 가브리엘
- ◆ 주일학교 여름캠프  
High school : 7월 27일 - 7월 30일  
Jr. High : 7월 30일 - 8월 1일  
장소 : <http://www.goldenvalleycamp.org/>
- ◆ FIAT 장학금 신청  
자격 :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고등학교 9-11학년)  
마감 : 5월 31일  
문의 : [fiat@fiat.org](mailto:fiat@fiat.org) 714-772-3995(ext. 106)
- ◆ 북가주 한인천주교연합 골프대회(청소년사목기금마련)  
일시 : 5월 17일(토) 오후 12:30 집결(샷건)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 Oakland  
참가비 : 부부 \$180, 개인 \$100  
도네이션 및 문의 : 김철우 가브리엘 510-910-2239

| 주일학교 소식                 |
|-------------------------|
| - 주일학교 11시/영어미사 12시 30분 |

| 안국학교 소식                       |
|-------------------------------|
| - 5월 10일 : 북가주 협의회 주최 꿈나무 예술제 |